어쭙잖은 드림 대신 거룩한 받음

(레22:1~3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5.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6.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8.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쭙잖은 드림 대신 거룩한 받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쭙잖은 드림 대신 거룩한 받음'
우리가 보통 '어줍잖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쭙잖다'가 맞습니다. 된 발음을 내야 맞는 단어 사용이라고 합니다. '어쭙잖다'라는 말의 뜻은 '비웃음을 살 만큼 그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주제와 분수를 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어쭙잖다'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해서 교회 이름이 뭐냐고 하니 "드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드림 교회'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 '하나님께 드린다.'

는 뜻이 있고 동시에 영어로 '꿈꾼다는(dream) 뜻으로 이 세상에서 비전과 드림을 갖는 교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꿈꾸는 교회, 비전을 갖는 교회의 의미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이 참 기발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재능을 드린다, 봉사한다,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다 '드린다.'는 말과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드림 강박증과 억압이 신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드린다.'는 말이 내 마음과 실제 행동으로 드리지는 못해도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 하는데'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인식상태와 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자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격상태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림의 고수(高手)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음의 고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벌써 의심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드린다.'는 말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림과 관련돼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주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인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받을 상이 크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림의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드림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받음의 사건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 받는 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독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독자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 받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드린 것이 아니므로 아브라함은 드림의 고수가 아니라 받음의 고수였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받으려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 받는 자가 참 신앙인이고 선민이고 받음의 고수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고향 친

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보니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이런 고향에 태어났습니다.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받아 놓고는 그것에 대한 뜻을 받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드린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쭙잖은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 뜻도 받아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뜻은 내 뜻으로 대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주인에게 생색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잘 살펴보면서 모두가 다 받음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봉사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던 이야기지만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에서는 불로 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기름이나 콩팥)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먹을 때에 제사장의 규정을 따라서 내 몫으로 돌려졌다고 해서 제사장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호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함은 더러움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함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 더러움의 상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 즉시로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에서 제사장의 몫을 받는데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 끊어짐이 있는 더러운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내가 선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민인 내가 누구냐는 것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언급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선민인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제사장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먹으려면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선민인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선 제사장의 비즈니스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평생 나의 관심과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될 내 일의 대상, 주 업무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인제사장시대에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일평생에 나의 메인 비즈니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평생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인데 마음을 하늘에만 다 쓰므로 도대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 업무인 하나님으로부터만 마음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관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제물 중에서 거저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 업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데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제사를 드려서 남은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소득의 십일조를 가져다 바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 업무 대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만 생각하며 삽니다. 내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면 이 세상 것들은 다 거저 주어집니다. 이미 거저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거저 주어진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구현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든 다른 제사의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마음 안에 들여놓은 내 인격이 죽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인격으로의 부활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가족을 들여놨다는 것은 예배당 강대상 위에 불상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들여놓아 더러워진 내 인격 자체가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들여놓는 인격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모셔 들여진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모든 것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을 들여놓지 않고 다른 것을 들여놓고 행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제 그렇게 모셔 들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 안에 방이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방의 임자가 되는 것처럼, 집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모셔 들여지면 이제 마음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 상태가 깨끗한 상태이고 정결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고 전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식도 받으면 되고, 가족도 받으면 되고, 아내와 남편도 받으면 되고, 돈도 받으면 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받음의 고수가 되려면 내 자신, 가족, 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뜻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도 그 뜻을 받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부터는 다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락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쓰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았으면 내 마음이 드려진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 것인 증거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 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결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을 정결한 상태에서 먹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얻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결함이 유지되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이 모셔 들여질 수 있다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요14: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시므로 말과 행동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것입니다. 잘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요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신 것으로 받음뿐입니다.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받아지고 받아진 것들에 대한 뜻까지 받아지면서,

오직 받음에서 시작해서 받음으로 이어지고 받음으로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는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흠은 상처를 말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결국 제물과 내가 동일시(identify)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상처 없는 내가 있습니까?
'흠 없는 마음을 드리라'는 것인데 '상처 없는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과 살이 붙어버립니다. 살이 붙었다가 그것이 떨어지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붙었던 자국이 상처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먼저 죽었다면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등을 돌렸다면 그 여자를 좋아했던 상처가 남습니다. 내 살이 되었다가 찢어지니까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 모두가 다 상처가 됩니다. 돈을 사랑해도 돈이 벌리지 않으므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갈 때에 상처가 생기니 상처 없는 자가 없고 흠 없는 자가 없습니다.
'드리라'는 말씀이지만 상처 없고 흠 없는 내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평생 살다보면 내 마음에 생긴 상처는 전부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므로 세상 것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상처가 생기고, 배신하므로 상처가 생기고, 좋아하는 사물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나는 상처 난 내 마음을 주님에게 얹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담고 계시는 주님을 받으시면서 나를 받으십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드리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신앙의 고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받되 하나님만 생각하는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 길 위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죄적 습성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길을 내신 주님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합니다. 계속 마음을

십자가의 주님께 올려놓기만 하면 내 마음의 성결이 유지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거나 소원하려고 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모든 순간마다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십자가를 먼저 떠올려서 그것에 빠져 들어가려는 마음을 죽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성결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결이 유지되면 당장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물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과 이미 주어진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결함이 유지되고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고, 무엇인가 새 것을 얻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부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의 뿌리가 죽으면 양분이 있는 땅과의 연결이 끝납니다. 태양은 나무들의 생명에 광합성을 하는 은총인데 은총인 햇빛이 비출 때에 말라 죽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뿌리가 살아있지 못하면 썩어버립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에게 태양과 비는 생명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짐승에게 햇빛과 물은 썩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조폭들을 보세요. 그 건강과 힘을 가지고 패싸움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데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하셔서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가 됐는데 교묘하게 탈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돈이 되면 악함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고 법망을 빠져나가서 자기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제 내 뜻으로 작용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뜻까지 받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같은 경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받은 것이라고는 몸 하나 밖에는 없으십니다. 그 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하십니다.
부자, 재벌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몸 하나 밖에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까지 받는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뜻까지 받을 수 있습니

까?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받는 것을 잘 누리고 받는 것을 잘 먹을 수 있는 길은 정결함이 유지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꾸 예배당 강대상에 불상을 들여놓듯이 내 가족이 들어오려고 하고 나라, 사업, 돈, 건강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함의 십자가 생활화가 반복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은 받기만 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받아서 이웃에게 준다면 주는 것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라고 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을 내가 받았음으로 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들은 받음의 고수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더러워지고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드려짐의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내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받음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려고 한다는 마음 자체가 타락증후군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생산을 하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만들고 내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은 타락증후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 하나 밖에는 못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뭘 더 받겠다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10만원 밖에 없다면 20만원을 벌려고 하지 말고 10만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써버리면 또 주어집니다. 이렇게 받음의 고수들이 되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부정함을 척결하고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직 받음의 고수로 살아가는 복된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